



'코로나 특수' 제주 골프장 역대급 호황

10월 내장객 전년보다 27.5% 증가... 도외 손님 급증해의 골프수요 제주로 몰려... 연말까지 예약 '별따기'

제주지역 골프업계가 코로나19 특수에 힘입어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 현황은 28만1604명으로 전년 동월(22만901명) 대비 27.5% 증가했다. 도내 내장객은 9만783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소폭 증가한 반면 도외 내장객은 18만3772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7.3%나 급증했다.

올해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코로

나19 상황 속에서도 3월과 5월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월별 내장객과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1월 10만2610명(6.0%), 2월 11만3345명(5.4%), 3월 14만2595명(-15.5%), 4월 19만5106명(0.2%), 5월 19만2717명(-11.8%), 6월 23만2580명(13.9%), 7월 22만8599명(37.9%), 8월 23만6836명(30.6%), 9월 19만5180명(33.4%), 10월 28만1604명(27.5%) 등이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내장객

은 192만117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

도외 내장객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2월부터 5월까지의 전년 동기 대비 26.2% 감소했으나, 6월부터 10일까지는 전년보다 40.0% 증가했다.

도내 골프장 내장객 증가 원인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하늘길이 끊기면서 해외 골프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골프 문화 대중화로 인해 골프 인구가 급증하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달달 전이라도 제주지역 골프장을 예약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일부 골프

장의 경우 최근 그린피와 카트비 등을 10% 가까이 인상했지만, 올해 연말까지 모든 예약이 사실상 마감된 상황이다.

한편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제주지역 골프장의 가격 인상과 예약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정에서도 불법·편법 운영실태, 변칙 운영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행정지도와 대화를 통해 골프 업계에 도민들의 불만을 전달하고 만일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원사 30·40대 젊은 기업인들로 구성된 'YOUNG 포럼' 출범식.

청년 기업인들 "제주경제 변화 이끌 것"

제주경영자총협회 '영 포럼' 출범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안귀환)는 지난 19일 제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도내 청년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YOUNG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제주경총 회원사의 30·40대 젊은 기업인들로 구성된 YOUNG 포럼은 기업의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와 경제 동향을 학습해 제주경제의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변대근 농협중앙

회 제주지역본부장이 '제주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하는 한편 장권철 제주세무서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나서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 사례와 보다 나은 국제행정 구현을 위한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형진 YOUNG 포럼 회장은 "젊은 경영인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영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경제동향과 경영기법 등을 공부하며 제주경제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1호 산림 예비사회적기업 (주)숲연구소 꿈자락 지정

(주)숲연구소 꿈자락(대표 김난희·이하 꿈자락)은 산림청이 지정하는 제주도 1호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 제2차 공모로 신청을 받아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 등을 심사했으며, 전국적으로 11개의 기업을 지정했다.

꿈자락은 산림복지 기반의 온·오프 숲 체험 매칭 서비스, 유아숲 체험원 운영, 자연물 키트 제조 등을 하며 숲해설 고용창출과 숲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꿈자락은 이번 지정을 통해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과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 자격을 부여받는다.

김난희 대표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숲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드론으로 농약 살포 지난 21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김자밭에서 농민이 드론을 이용해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타당성 연구 착수

내년 7월까지 총 8억 투입 물류비 경감 방안 등 마련

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비 지원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가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제주도청 별관 청정마루에서 도·시·군·자치단체 농산물 물류비부담 경감방안 실증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증연구용역은 농림축산식

품부에서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체계를 분석하고 해상운송비에 대한 지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군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을 위한 실증연구용역'은 연구용역비 3억5000만원, 실증연구 4억5000만원 등 총 8억원이 투입된다.

용역 수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게 내년 7월까지 시행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도·시·군 농산물의 생산현황 및 유통실태 분석 ▷도·시·군 농산물 지원현황 및 효과

▷도·시·군 농산물 물류비 절감방안 실증연구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물류비 지원방안별 소요예산 분석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실증연구용역을 통한 해상운송비 지원 타당성 검토가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인 해상운송비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주 지역 생산농가의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감 방안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독점적 마늘 유통구조 개선안 나오나

농식품부 연구용역 추진키로

정부가 저장업체의 마늘 유통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마늘 농가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단체의 역할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마늘 유통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위 의원실에 전했다.

국회·부미현기자

마늘 유통체계 문제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마늘은 5월 하순에서 7월 상순까지 연중 1회 출하해 냉장저장해 관리하고 연중 시장에 공급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유통경로 상에서 육지의 경우 생산량의 46%가 저장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81%가 저장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가공 및 도소매로 직접유통하는 물량은 육지의 경우 26%, 제주도는 13%에 불과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항공 안전규정 위반 22억 국토부, 항공사 4곳에 과징금

제주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20억 원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제주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 22억6000만원, 대한항공 8억원, 아시아나항공 2억원, 이스타

항공 4억원 등이다.

제주항공은 허가 없이 위험물 운송으로 12억원,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 4억원,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 규정 미준수 6억6000만원 등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조종사 3명과 운항관리사 1명 등 총 4명이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승객수하물 처리규정 미준수(8억원), 아시아나항공 부적절한 운항절차 수행(2억원), 이스타항공 선회접근 중 운항규정 위반(4억원)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현석기자

당첨번호	4. 8. 10. 16. 31. 36
2 등 보너스숫자	9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	5개 숫자+보너스숫자 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그랜드 보청기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행사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상층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충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에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리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직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와목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문의: 064-713-9953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제주도정소식

제주특별자치도 202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도내 모든 농·임·어·어가)

조사기간: 인터넷조사(20.11.23.-12.11.) / 방문면접조사(20.12.1.-12.18.)
* 전국 규모의 통계 조사인 농림어업총조사에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 부탁드립니다!

「탐나는전」가맹점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제주도내 소상공인 상점 (대규모 점포·유휴·단란주점·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 온라인 신청: 2020. 11. 11.부터 (제주도청 홈페이지)
- 방문 신청: 2020. 11. 25.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은행·농협은행)
- 문의: 가맹점 콜센터 ☎1600-0836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안내

- 탐방예약제 운영 구간: 성관악·관음사·백담담 정상
- 1일 예약인원: 성관악코스 1,000명, 관음사코스 500명
- * 성관악 코스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2021. 1월~3월과 4월~5월
- 예약방법: 한라산예약시스템 (http://visithalla.jeju.go.kr) 전화(064-713-9953)
- 성명, 거주지역(시·도), 연락처 등 입력
- * 한라산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는 2020년 12월 1일 오픈 예정
- 예약시기: 탐방일 기준 전날 1일부터 예약 할 수 있고, 단차는 1인 10명까지 예약 가능
- 예약 부도자 탐방제한 적용: 1회 3개월, 2회 1년 탐방제한
- * 탐방예약제 운영기간 외 여러목·영실·논내코스는 예약 없이 탐방 가능
- 문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710-7813

성관악휴게소 공영 주차장 주변도로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 강화 안내

- 한라산 탐방예약제 시행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주정차금지 구간: 성관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태삼거리까지 4.5km,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 1.5km까지 총 6km 구간
- 불법 주차차 위반 시: 승용·4륜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4륜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문의: 교통정책과 ☎ 710-2462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충전에티켓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 단속지역: 주차단위구획 100㎡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공 이용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공주차장
 -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일반차, 전기차 모두 해당): 10만원
 - 급속충전기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이상 계속 주차시: 10만원
 - 충전구역 내·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원
 -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 충전에티켓
 - 전기차 충전기 앞(충전구역)에 주차하지 않기
 - 충전 완료 즉시 차량 이동하기
 - 급속충전기 이용시 1시간 이내(80%이하)로 충전하기
 - 충전 중 자리 비울 시 연락처 남기기
 - 사용 후 충전케이블 정리 및 쓰레기 버리지 않기

문의: 저탄소정책과 ☎710-265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안내

- 단속시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21시
- 단속방법: 도로변에 설치된 공해저감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단속 실시
- 운행제한 시간에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회 부과)
- 유예사항: 저공해조치신청 시 21.6.30까지 과태료 유예
- 문의: 생활환경과 ☎710-3112